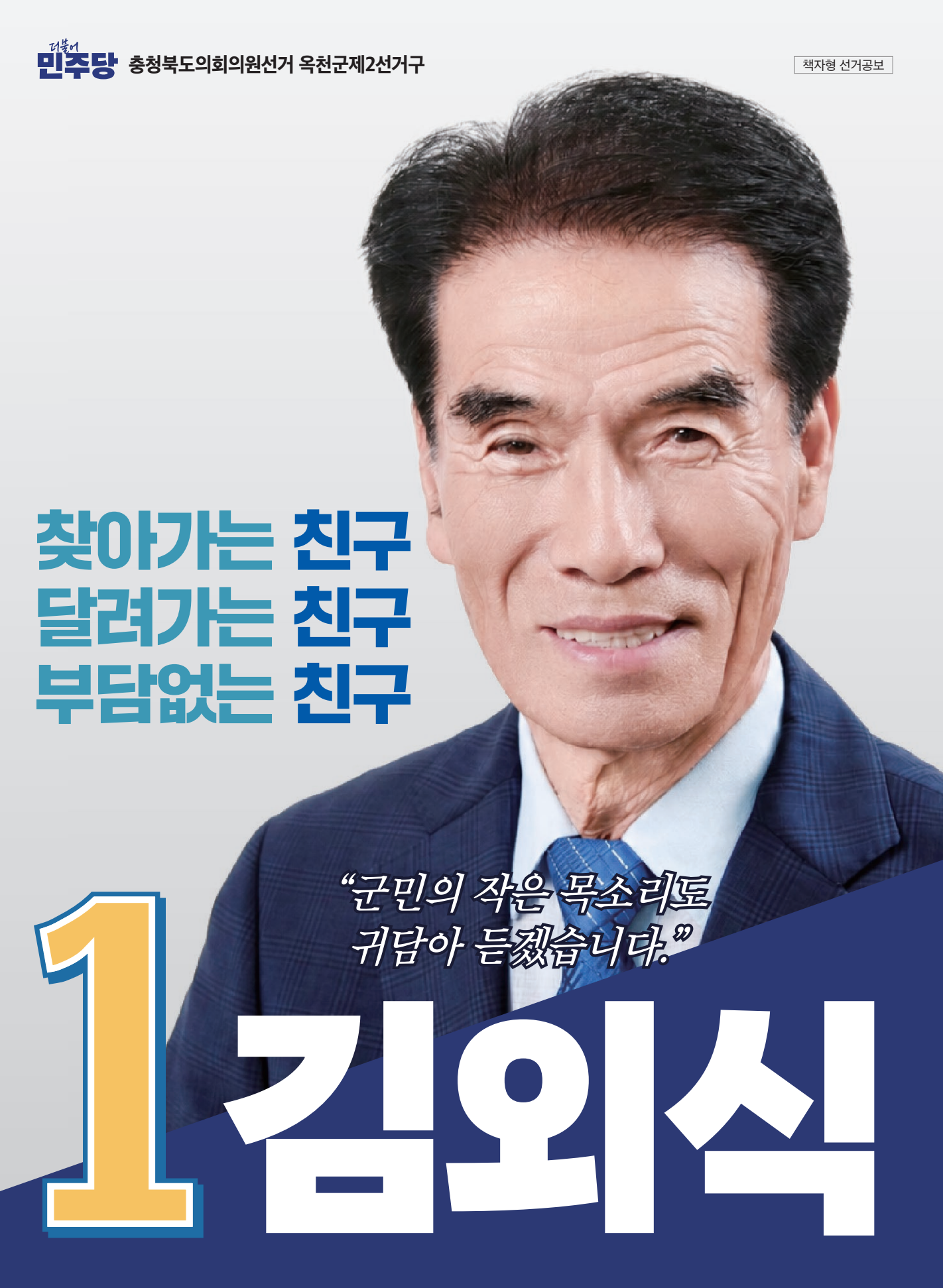
더불어 민주당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옥천군제2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찾아가는 친구
달려가는 친구
부담없는 친구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1 김외식

한평생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

김외식은 화려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름보다 얼굴이 먼저 알려졌고,
말보다 행동으로 기억된 사람입니다.
묘목밭에서 땀 흘리던 농민, 재래시장에서 상인의 한숨을 듣던 이웃,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군청과 의회를 오가던 생활정치인.
지역이 잘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천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농촌은 늙어가고,
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김외식은 말합니다.

"지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천에는 사람도 있고, 농업도 있고,
대청호와 자연도 있고,
서로를 챙기는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입니다.
김외식은 군민과 함께 옥천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생활의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 식품 사막 극복 이동식 마트 추진
- 지방소멸 대응 강화
- 청년·귀촌·생활인구 확대
- 통합돌봄 복지강화
-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 기후·농업 위기 대응
- 청년주택 지원
- 문화 • 예술 창작지원

더불어 민주당

사람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옥천의 다음 10년을 준비합니다.

비가 오면 농사를 걱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밤잠을 설치고,
새벽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농민이 웃고, 상인이 다시 힘을 내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편안한 옥천.
그 길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 올림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1 김외식

- 전) 옥천이원영농법인 대표
- 전) 8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
- 현) 옥천문인협회 회원
- 현) 옥천군의원